대한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신임회장

이상운 (주)광일건설 대표이사 회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중소 건설업 회생에 앞장설 터"

"건설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그어느업종보다 크고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대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8대 회장에 추대된 이상운 광일건설 대표이사는 시종일관강한톤으로지역중소건설업의 현주소와활성화방안에대해역설하였다. 30년 이상 건설업 외길을 걸어왔기 때문에누구보다 바닥현장을잘안다는 이 회장은"대·중소업체간의수주격차심화는고착화된고질병중하나"라면서"대기업에 유리한 입찰 관행은 재임 중 반드시 바로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운 회장은 부산 지역의 건설 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업체수증가로업체당수주물량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 발주되는대형공사의60% 이상을다른지역의대형업체들이수주하고있는데따른결과라는 것이다. 게다가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민간 건설경기도살아날 기미를보이지않아지역업체들이고사위기에직면해있다고말했다.

전국면허77%호의업력이말해주듯이상운회장은지금의어려운 상황을실제경영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그에따르면정상적으로 건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등최소 15명의직원이필요한데이에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라고한다. 공사수익률을7 8% 정도로산정하였을때연간 50억원규모의수주가이루어져야 기본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부산 지역 건설업체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지난해 부산시회 회원 377개 사 가운데 기성액이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177개 사에 달했습니다. 상당수업체가이익은커녕난파직전에처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0여 개 회사가경영난으로문을닫았습니다."지역건설업계가 고사 직전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되지않았음을실감케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상운 회장은앞으로각종 불합리한제도개선에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건설 공사의 조달청 위임 제도와 BTL 사업의합리적인추진은전국의건협시·도회와함께강력히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먼저, 이상운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200억원이상PQ 공사, 턴키및대안입찰대상공사를조달청에위임발주하도록법령화되어있는조달청위임제도의개선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조기에 폐지하여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이관 조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그는지난7월부산상공인들이청와대를방문해노무현대통령과면담하는자리에서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건의해 긍정적인대답을얻어냈다고말했다.

"지자체공사의조달청위임제도가폐지되면 계약 수수료로 지불되는 막대한 지방예산이절감될뿐만아니라지역업체의공사참여기회가크게늘어나게됩니다. 제도개선을통해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는 이러한 방안이야말로 지역 경제와 지역 업체를살리는길이라할수있을것입니다."

BTL 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이상운 회장은 총 사업규모를몇개 사업으로묶어서 추진하는것을금지하고단위사업으로추진해지역중소업체의참여기회를확대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이외에도그는민간건축공사사용 승인 신청시 시공자확인제도 등을 개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